

11월 주일 낮 예배 대표 기도문

11월 주일 낮 예배 대표 기도문

11월 주일 낮 예배 대표 기도문을 통해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두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늦가을의 정취가 깊어지는 11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며 성도 공동체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게 됩니다. 이 시간 준비된 기도문들이 여러분의 예배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월 주일 낮 예배 대표 기도문 1 - 감사와 찬양의 기도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시편 105:1)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11월 주일 낮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크고 작은 은혜들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찹니다. 주님, 이 늦가을의 계절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해주시고, 매 순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오면서도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주셨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인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민들을 주님께서 아시고 계시니, 주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가정의 화목과 자녀들의 신앙 성장, 직장과 사업의 번영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이 11월을 보내며 다가오는 연말을 준비하는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품고 위로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월 주일 낮 예배 대표 기도문 2 - 회개와 용서의 기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9)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11월 주일 낮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겸손히 나아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지나온 한 해 동안 우리가 범한 크고 작은 죄들을 용서해주시옵소서. 말과 행동으로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했던 마음들, 교만과 이기심으로 가득했던 생각들을 회개합니다. 특히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서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품었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기보다 판단하고 정죄했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과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일들을 회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예배 방식의 변화와 교회 운영의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했던 모습들을 용서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어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용서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11월 한 달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월 주일 낮 예배 대표 기도문 3 - 교회와 성도를 위한 기도

“모든 성도와 함께 능히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으며” (에베소서 3:18)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11월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 공동체와 모든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의 담임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부음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급변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복음의 진리를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부서와 사역자들을 축복해주시옵소서. 주일학교 교사들과 청년부, 장년부, 여전도회, 남전도회의 모든 봉사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되이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목회 환경에 적응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효과적인 사역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가정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에게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교육과 진로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시옵소서. 이 11월을 지나며 한 해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이 시기에,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 되어 주님의 몸 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사회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월 주일 낮 예배 대표 기도문 4 -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디모데전서 2:1-2)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11월 주일 낮 예배 가운데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모든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혜롭고 공의로운 정치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국정 운영의 어려운 결정들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국민들의 복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양극화 문제, 저출산과 고령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청년들의 취업난과 주거 문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되기를 기도합니다.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평화통일의 그날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의 인권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며, 복음이 자유롭게 전해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민족의 영적 각성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다시 한 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민족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회의 건전한 가치관 정립에 기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11월과 연말연시를 맞이하며, 우리 민족이 감사와 나눔의 정신을 되찾고,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땅 위에 충만하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월 주일 낮 예배 대표 기도문 5 - 선교와 전도를 위한 기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19)

만민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11월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온 세계 선교와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모든 민족과 족속에게 전해지기를 간구합니다. 먼저 전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현지인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선교 사역에 많은 제약이 있었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이제는 다시 선교지들이 문을 열고 복음 전파의 기회들이 확대되기를 기도합니다. 디지털 선교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선교 방법들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 종족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서 종교의 자유가 제한되고 기독교인들이 핍박받고 있는 현실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담대히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안에서의 전도 사역도 축복해주시옵소서. 교회 성장률이 둔화되고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성도들이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학교, 가정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옵소서. 이 11월을 보내며 다가오는 연말과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선교적 사명감을 새롭게 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11월 주일 낮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길 바라며, 더 많은 예배와 기도 자료는 [한국교회 예배 안내] (<http://klmc.church/klmc/worship/sunday-worship.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도문 보러가기:
(대표 기도문 나눔터) <https://prayer-church.co.kr/>